지역업체 보호 대폭 강화

익산시,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6월 말까지 연장 운영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수의계약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지역업체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례 적용 기간에는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4억원 이하, 전문공사 2억원 이하, 기타공사 1억 6천만원 이하 등 기존보다 2배 상향해 적용한다.

또한 검사·검수, 대가 지급기한을 대폭 줄여 준공 후 신속한 검사와 지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검사·검수는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 5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한다.

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이 공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왔다.

매년 반기별로 지역 업체 생산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업체를 발굴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익산 지역업체 현황을 유관기관까지 확대해 홍보하는 등 지역업체와의 우선 계약에 일반시민, 단체, 기업체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발주부서와 계약부서가 긴밀히 협조해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적용하는 등 지역업체 수주율을 꾸준히 높인 결과 지난해 지역업체 계약률 약 75%를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상권과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깨끗하고 신명나는 청정선거 협약하자"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조용식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가 6월 1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장을 역임한 조 예비후보는 이어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내 경선과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익산시 현안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우리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안타깝게 석패 한 직후 이루어지는 선거로 후보들은 대선 석패의 아픔을 간직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더 나은 익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더 깨끗하고 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도록 경선 참여자 간 청정 선거 협약을 제안하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가 되어 익산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으로 정책으로 경쟁하고 서로 격려하며 경쟁하는 아름다운 선거 풍토를 만들자"고 했다.

조 예비후보는 주요 현안정책으로 ▲신축하는 익산시 청사를 설계 변경하여 200세대 이상 청년 아파트 건립하여 공급 ▲익산시 중심가에 어린이 놀이 공원조성 ▲시내 중심가 민원 발생이 있는 마동 하이트 진로 익산공장과 영등동 오리온 공장을 왕궁 국가식품클러스터 이전 추진 등을 발표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통

제5기 군산시 외국어 통역 봉사자 모집

군산시는 글로벌 협력 강화와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제5기 외국어 통역 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기타 언어를 구사하는 만 19세 이상의 군산시민으로 군산시의 국제 교류 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다문화가정 증가 및 방역지침 완화 이후 점진적 행사 개최 등 외국어 활용 수요를 반영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와 같은 특수 외국어의 폭을 넓혀 선발할 예정이다.

외국어 통역 봉사자는 서류 및 면접으로 선발되며, 향후 2년간 시 주관 국제행사 및 관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한다. 봉사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우수 봉사자 군산시장 표창 등 특전이 제공된다.

/군산=남현봉기자

익산시, 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10만원 지급

익산시가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에 방역 물품비를 10만원씩 지급한다.

시는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자정까지 방역 물품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따른 방역물품 지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학원 등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6,000여 개소에 최대 10만 원씩 지급한다.

해당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통장 사본, 방역과 관련된 물품 구매영수증을 첨부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역 물품비는 대상 여부 확인 후 2~3주 내 대표자 통장 계좌로 지급된다.

3월 15일 기준 지급 건수는 2,800여 건으로 전체 대상의 약 50% 정도이다.

/익산=이득훈기자

알고 계신가요? 바다에도 쓰레기통이 있다

군산시, 선상집하장 활용 해양환경 개선사업 추진

군산시는 올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2개소를 개야도와 신시도 해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바다의 쓰레기통이라고도 불리는 선상집하장은 가로 15m, 세로 7.6m 크기의 직사각형 구조물로 어민들이 조업 중에 발생하는 폐어망,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모아서 바다 위에 떠 있다.

바다로의 쓰레기 재투기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선상집하장은 모아진 해양쓰레기를 수거한 뒤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시는 고군산군도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19개소를 설치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에는 두리도와 장자도 해역에 각각 1개소씩 설치했다.

올해 또한 선장집하장 설치를 위해 시 수산조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에서 선상집하장 설치지역을 개야도와 신시도로 선정했으며 해당도서 인근 해역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산시는 올해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2개소를 개야도와 신시도 해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뿐만 아니라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장마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및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난해 1,9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올해는 2,650톤 수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상봉 항만해양과장은 "해양쓰레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군산군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인 만큼 다양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군산 앞바다를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기자

익산시, 기업·청년 '윈윈' 맞춤형 정책 추진

익산시가 청년들의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취업을 연계해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참여 기업 선발을 대부분 마치고, 각 세부 사업별로 참여 청년 모집에 본격 돌입했다.

모집 분야는 패션산업 인력양성지원, 식품기업 일자리 맞춤형 지원, 청년알부자일자리지원 등 4가지 유형으로, 관내 60여개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81명의 청년을 모집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2년동안 월 최대 16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전액 시비로 월 10만원씩 교통비까지 지원된다.

이어 청년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 등과 함께 2년 이상 근무시 자격조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최대 1천만원의 인센티브까지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익산 거주(예정) 미취업 청년으로 대학교 재학생이나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 등록자등은 제외된다.

관심있는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모집공고문에 게시된 참여기업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익산=이득훈기자

고인 예우로 존엄 삶 마무리

군산시, 무연고 기초수급자 사망자 첫 공영장례 시행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무연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사망자의 명예상주가 돼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가 첫 번째로 이뤄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연고가 없는 기초수급자 김모(64)씨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난 19일부터 3일간 실시하고 발인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무연고 기초수급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처리를 해왔지만, 이번에 진행된 공영장례를 통해 고인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진행된 공영장례는 그동안 암 투병을 하며 힘겹게 살아 오다가 지난 14일 사망한 1인 단독가구 기초수급자다.

사망 후 연고자가 중증 장애로 인해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시는 The-K예다함상조, 플랜투스와 함께 고인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안치했다.

이후 빈소마련, 염습, 입관, 운구, 화장, 봉안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장례 절차와 마찬가지로 고인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세심하게 진행했다.

오승찬 The-K예다함상조 대표는 "가족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세상과 작별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정성스럽게 보내드려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분들을 위해 군산시와 적극 협력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아동 권리 실현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익산시가 아동 관련 예산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아동친화예산서'를 발간해 아동 친화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아동의 권리 증진 관련 예산 분석과 진단을 위해 아동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33개 부서, 259개 사업이 포함된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했다.

아동친화예산서는 올해 본예산을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가정생활환경 등 6가지 영역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를 중심으로 분류해 정리한 예산서이다.

올해 익산시 아동 친화 사업 규모는 총 1,530여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0.67%를 차지한다.

인구 대비로는 아동 1인당 평균 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9만원이 상승한 수치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안전과 보호 분야가 656억5,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환경 401억6,000여만원, 보건과 사회서비스 266억9,000여만원, 가정생활환경 103억9,841만원, 놀이와 여가 90억8,000여만원, 참여와 시민권 10억 6,000여만원 순이다.

특히 지난해 정책적 강화가 요구되었던 놀이와 여가, 제한된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친화예산서는 매년 3월에 발행될 예정이며,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홈페이지 아동친화도시 분야에 공개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과 모니터링에 활용한다.

/익산=이득훈 기자